

금주 **금주** **금주**
 쫓지 말라.
 미래를 회구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버려진 것.
 미래는 아직 오고 있지 않다.
 -중부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시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구 동구 신안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9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334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해인사 주민대상 교리강좌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세민가 오는 28일부터 '제1기 불교 신행 기초교리 강좌'를 6개월간 실시하기 위해 수강생을 모집 (055-931-1001)하고 있다. 포교국장 관암스님에 따르면 이번 신행 기초교리 강좌는 절 아래 마을주민들이 주 대상이다.

관람료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청각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포교에는 등한시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조계종 본사에서 지역민들에게 전파하는 기회를 만들어 신심을 배가시키겠다는 강좌개설 취지가 우선 반갑다.

그러나 이번 강좌가 더욱 눈길을 끄는 부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교리공부 위주라 아니라는 점이다.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불교 신행 기초교리 강좌' 전반 3개월은 집중적으로 교리 강의를 하고 후반 3개월은 신행과 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수업을 직접 몸으로 익히고 또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 시간을 교리 강좌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행' 에도 역점을 두어 올바른 신행관을 확립시키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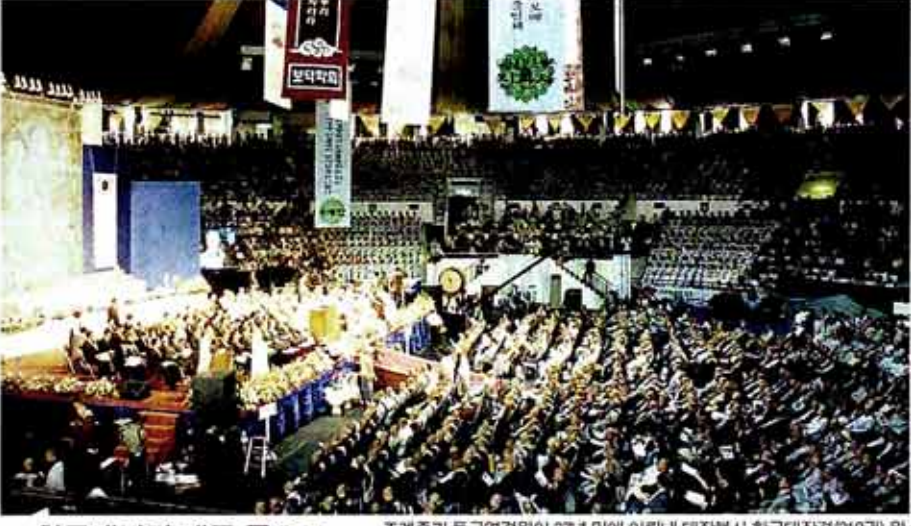
특히 신행교육으로는 예불문이나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책독(誦)하기, 1차배 사경, 정근, 108배 등을 매주 과제로 주어 한달에 한번 해인사로 직접 정거를 받게 한다. 또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하고, 기초 교리공

부와 신행, 봉사 등이 모든것을 철저하게 이수한 사람에 한해 내년 3월 기초교리 수료증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관암스님은 "큰 절 아래 사는 주민들이 주 대상이 아니라 '수료생'을 위주로 향후 신행모임도 만들고 포교사로 키우기 자연스럽게 절에서 자원봉사로 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인사의 지역주민 대상 신행 기초교리 강좌는 물론 조계종 사찰의 신도교육 의무화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책상에 앉아 배우는 교리공부와 더불어 신행교육도 강화해, 알과 실천 이 원만한 조화된 신심 깊은 불자를 배출하겠다는 해인사의 의욕이 돋보인다.

다른 관암도 사찰들도 지역민 신심 고취에 관심을 가져 사하촌 주민들부터 훌륭한 포교사로 키우겠다는 원력이 확산됐으면 한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한글대장경 대중 품으로 조계종과 동국대경원이 37년 만에 이뤄낸 대적불사 한글대장경(3182) 완간을 축하하는 회합연회가 5일 장충체육관 특별법정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법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율은 동국대경원장을 비롯해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화상 한국사대총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경사, 회합법회, 축하공연 순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관련기사 24면) 사진=고영배 기자

지자체 '문화유산 해설사' 15개 사찰 배치

"불교 모르면서 안내"

기독교인도 상당수

각 시·도가 일부 전통사찰에 배치한 '문화유산해설사'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불교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문화유적과 지역문화 등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파견된 사제로, 문화관광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각 지자체는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문화유산해설사는 서울과 인천,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양성, 전국 110여 곳의 유적지에 모두 460여명이 배치됐으며, 이중 범어사, 월정사, 파계사, 범주사 등 15개 사찰에서 3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사찰 가운데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은 문화유산해설사들의 활동이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문화재 설명에만 그치거나, 심지어는 왜곡 설명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5개 사찰 중 11개 사찰의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개신교·천주교인이나 무종교인인 것으로 드러나 사찰 문화유산해설사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사찰의 문화유산해설사는 개신교인으로 불교문화재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사찰관계자를 불만케 하고 있고, 대구 ○사찰 역시 개신교인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 사찰의 불만이 높다. 또 대구 포사찰에서는 사찰예절조차 몰라 사찰 관계자가 시에 항의까지 했으며, 부산 ○사찰은 관람객들로부터 일부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이 부족하고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문화관광부가 문화유산해설사 제도를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다, 자치단체마저 형식적인 배치에만 급급할 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사찰에 배치되는 문화유산해설사의 경우 종단이나 사찰 차원에서 안내봉사를 양성하고 문화관광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죄와 뇌물수수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업무상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새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 업무상횡령 부분에서는 무죄를, 뇌물수수 부분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군 검찰과 김 소장의 손을 내리며 들어온 셈이어서 향후 재판결과와 복직 여부가 주목된다.

조계종 종교평화대책위원회는 "유리한 종단은 모두 채택이 묵살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이 계속됐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관련기사 9면 김재경 기자

김태복 소장 '무죄'

대법원 "형량 아니다"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소장이 부하 장교가 유용했다가 변상한 600만원의 부대 운영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부대비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형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김 모소로부터 2000만원 뇌물수수액과 관련한 피고인 김태복 소장측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9면 김재경 기자

사면 중헌개정 '불발'

교육원장-무비 스님 포교원장-도영 스님 선출

조계종 151회 임시총회 가장상으로 복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이전 특별회계 47억 4천여만원, 일반회계 166억 5천여만원, 시설회계 42억 3천여만원, 신도교무금 4억 4천여만원 등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인으로 승인하고, 중장갑사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보선, 영배 정인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추천등의 했다.

또 승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법제법과 승가고시법을 개정하는 한편 교육원장의 교육원 예산의 집행권한을 신설하는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군승에 대한 제적탈차 간소화와 말사주지 자격과 의무를 강화하는 중무원법도 개정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북한산 관동도로 반대와 우회도로 건설 △종단 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과 넉말 불비나선지 대행당 건설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관련기사 2-3면 김원우 기자 www.buddhanews.com

중국 하남성·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장주, 낙양, 등풍을 비롯해 예주, 윈족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 유적을 찾아갑니다.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전파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중의 하나인 용문석굴에서 10만여 불상들을 함께 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에 자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 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황릉인 병마용을 비롯해 부처님 진시황릉사에서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장지 등을 볼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만리장성·소림사·용문석굴·법문사·병마용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5박6일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만 여권수수료는 별도)
 ◇접수및문의: 02)333-8091(담당: 김지훈, 윤지영)
 ◇접수기간: 10월6일(토)까지여권 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경회)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아주세계여행사
 ●후원: 중국하남여유집단유공회사



◇진시황릉 병마용

장군죽비

- ◇98년 조계종 분규 상처, 월하 스님 통도사 방장 재추대로 이끌기 시작. 몇가지 일제 사면 문제도 빨리 매듭지킴 (9면)
- ◇흔들리는 믿음은 병, 미국 보물링 그린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 투병 환자에게 종교적 회의는 '독'이라는 조사 결과 발표 (10면)
- ◇불교계에도 韓流바람이 부는가? 중국 스님 27명 신종사에서 한국 불교 수행 전통 체험을 위해 용맹정진. (11면)
- ◇불교환경연대 출범! 풀 한 포기 들음이 하나도 부처로 아는 이 시대의 보살들에게 '환경 보호'는 제비바람. (23면)

스님 종교 신도 좋은 신용카드 - 불자는 부다피아카드로 산다!

현대불교와 하나은행이 제휴한 불자신용카드 "부다퓌이 하나카드" 발급 개시

하나은행 비자카드 특전 + 선물보시! 부다퓌이 하나카드엔 특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부다퓌이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 보시금은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접수된 카드발급 부분에 안에서 적용되며(은행이나 기타카드대리점 제외) 현대불교신문 불교카드사업단을 통해 발급 받은 부다퓌이 카드로 6개월 이내에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5만원 이상의 사용 실적이 있을 경우 7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부다퓌이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 연꽃마을, 소책마을,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복지 단체에 제공됩니다.
 - 군법당, 교도소, 병원 등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필요한 곳에 법포사용으로도 쓰입니다.
 - 결식아동돕기 등 아동 재활을 위한 기금으로 쓰입니다.
- 부다퓌이 하나카드 보시금은 이렇게 관리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은 불자여러분이 보여주는 보시행의 참 뜻을 받들어 기금운영 상항을 현대불교신문 지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관리합니다.

특별혜택

- 초기 연회비 면제: 9월 1일~10월 31일 가입자는 S-OL 4천원 무유무분 증정
- 시책1**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
- 시책2** 무료유일인 서비스
- 시책3** 무료보험 서비스
 - 휴일상해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 항공상해보험 · 병소니안보험
- 시책4**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
- 시책5** 스피드 카드로

카드사업에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제출)

● 접수 및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카드사업단 대표 02)6676-1115-6

부산지사 051)463-5331 ~2 광주지사 054)674-1199 목포지사 061)244-4520 김해지사 033)643-5599 대구지사 053)768-8008 포항지사 054)284-4575

충청지사 042)527-0559 광주지사 062)375-9986 일양지사 055)353-1196 전북지사 063)255-2274 울산지사 055)387-1500